

해양수산부 차관,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국제해운 탈탄소화 협력 논의

- 국제해사기구(IMO) 중기조치 대응과 녹색해운항로 등 선박 온실가스 감축 노력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4일(월)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등에 대하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 '28년부터 연도별 선박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를 정하여 미달성 선박에는 온실가스 배출 톤당 비용을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기준비용 상향('25.10월 IMO총회에서 채택 예정)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국제해운 분야에서 중요한 의제인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에 대한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성범 차관은 제4차 UN 해양총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EU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오늘 면담을 통해 EU와 한국 간 녹색 및 넷제로(Net Zero)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과 EU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 온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남창섭 (044-200-5830)
	해사산업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박인성 (044-200-5834)